

舞 朝鮮 무용 叢 新

発行：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舞踊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03-3817-0431

제 10 호 (루계 제 10 호)

주제 9 1 (2002) 년 12 월 16 일 (월)

민족문화운동을 전 동포적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자!

지난 9 월 28 일부터 29 일 효고에서 도쿄, 니시도쿄, 오사카, 효고, 도카이지방에서 제 10 명이 참가하여 무용부장모임이 진행되었다. 처음에 모임에서는 여름에 진행된 문예 일군조국방문단사업과 9 월에 진행된 무용지도원강습에 대하여 보고되었으며 평양음악 무용대학 통신학부사업과 재일조선학생예술단 서울공연사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어서 6 월말에 진행된 문예동 무용경연대회에 대한 반향과 의견을 수집하였다. 부장을 비롯한 모임참가자들은 경연이후의 각 지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연말까지의 사업계획을 토의결정하였다.

모임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 19 기 제 2 차회의보고와 지난 6 월 23 일에 진행된 《민족문화운동을 전 동포적으로 힘 있게 벌려 나가기 위한 문예일군들의 모임》의 보고를 재학습하면서 당면 제기되어 있는 ① 《문화교실》, 《예술소조》를 더 많이 꾸리는 사업, ② 2002 년 독무경연대회를, 2003 년에 무용경연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사업협의, ③ 군중무용창작에 대한 분공, ④ 무용작품발표회와 관련된 사업, ⑤ 여름과 연말에 진행되는 《문예동맹원기량전습단》사업, ⑥ 조선무용통신 보급사업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정세가 엄혹한 속에서도 문예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것이며 문화사업을 통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랑과 긍지감을 되찾아야 한다고 의사일치를 보았다.

2003년 3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수강생 입학추천심사사업 진행

◆ 구체적인 문의는 각 지역 문예동지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양예술경연대회

무용지도교원에게서 듣는다!

인터뷰내용 ①경연날까지 학생들에게 중심적으로 지도해온 점 ②지도에서의 애로점 ③앞으로의 포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음악에 맞추세요!》



《프로그램순서는 ...》

리애자(아이찌조고) 경험 4년째
 ①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넉과 긍지를 가지며 날마다 련속되는 힘든 련습에도 이겨 내여 고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춤을 추도록 지도해 왔다. ②자기가 무용과 안무리론을 체계적으로 못배운 탓으로 정확한 동작과 호흡, 알맞춤한 동작들을 배워주지 못했다.

③무용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무용수로 키우기 위해서 헌신 분투해 나가겠다.



《호흡을 맞추고...》

《꿈구나...》



무용부문의 뒤무대



《야! 새 우는 소리?》



《합! 뽀오즈!》

윤기순(가나가와조중) 경험 8년째

①아리랑민족의 자랑과 긍지를 군무 춤가락에 담아 표현하도록 늘 이야기를 하여 왔다.

②애로점은 많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탓으로 안무를 뜻대로 못했다.

③학생들이 더 우아하고 부드럽게 춤 출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다.

강평 **부드려우면서는 민족적맛이 나게 춤 추어야**

올해 작품에는 이역땅에서 나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고상하고 순결한 마음과 지향성, 낭만적인 생활감정이 훌륭히 형상되었다. 학교마다 큰 차이가 없어 졌으며 전반적으로 춤을 잘 추게 되었다. 東京、大阪、神戸조고의 군무는 주제도 좋고 안삼불수준도 높았으며 예술성도 있었다. 바라, 부채, 소고 등을 리용한 민속무용에서도 민족적 흥취와 맛을 내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였다. 앞으로 몸자세를 바로 하고 기초를 똑똑히 하며 부드러우면서도 민족적맛이 나게 춤 출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품의 주제는 좋아도 춤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는 경향이 보였다. 또 음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소도구 사용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속도감있게 춤 추자는 나머지 란잡하고 정서가 없는것이 눈에 띄었다. 의상, 소도구 등도 민족적이며 현대적 미감에 맞게 갖추어 나가도록 할것이다.

현재지식

로동계급의 패기와 열정을 담은 약동적인 무용(요지)

—독무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에 대하여—

주 문 결

작품의 내용과 특성에 맞게 룰동은 두개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기백과 열정에 넘치는 룰동으로 형상되고 있으며 중간부분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룰동으로 형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룰동의 형상적대조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보다 생동하게 해준다. 춤은 시작과 마무리를 공통된 룰동에 기초하여 통일시킴으로써 형상적완결감을 주고 있으며 중간부분은 누린 부분으로 설정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룰동을 주어 앞부분과 뒤부분과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무용의 기본사상을 강조해주고 있는 후반부분에서는 감정의 양양과 비약을 표현하기 위하여 잦은 걸음의 련속된 회전수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결속을 론리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함으로써 감정의 양양을 독무형식의 독특한 맛으로 보여주었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의 룰동형상은 생활세부들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독무형식은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는데서는 제약성이 있으나 생활세부들을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반영하는데서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에서 끊어진 실들을 재치있게 이으며 누벼가는 손목동작, 천리마직기를 힘차게 돌리며 한오리한오리의 실들을 눈여겨 살펴보는 안면표정, 필필이 쏟아져내리는 오색무늬 비단필을 하늘높이 뿌려 올리는 팔동작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활짝 꽃피워가는 직포공처녀의 불타는 충성심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무용 《검차원의 영예》에서 마치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장을 퇴치하는 동작, 정다운 일터를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형상 등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혁명임을 주인답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의 동작과 룰동들은 작품의 세부를 섬세하게 형상하여 깊은 예술적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무용 《직포공의 마음》과 《검차원의 영예》는 무용수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여주는데서도 좋은 작품으로 된다. (다음호에 이음)

2003년 7월 13일 문예동무용부동무경연대회 진행

무용자료안내

| | | |
|----------------|-------------------|-----------------|
|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1〉 | 〈조선무용기초동작 1,2 단계〉 | 〈세월과 더불어 및 무용곡〉 |
| 비데오테이프 ¥3,500- | 비데오테이프 ¥3,500- | CD판음악 ¥4,500- |
| 음악테이프 ¥1,500- | 음악테이프 ¥1,500- | |

학교창립 50돐을 통해서

오사까문예동무용무 송영애

제가 오사까조고 강사를 맡아서 5년째가 되는 올해 학교창립 50돐을 맞이하였다. 여러 축하행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기념공연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컸으며 그 속에서 특히 무용작품이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였고 이제까지 없는 경험이니 불안과 함께 두 어깨에 진 책임을 크게 느꼈다. 그러나 50년간 대를 이어 우리 학교를 지켜



온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크게 과시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에 헌신 분투하자고 굳게 결심 다졌다. 그 준비를 위해 조국을 방문하고 유명한 작곡가, 안무가 선생님들과 만나 의견도 받고 방조를 받게 되었으며 일본에 돌아와 작품화하였다.

공연사업과 함께 50돐 맞으며 무용부졸업생들을 불러 일으켜 기금운동도 벌려나갔다. 문예동부위원장, 무용부장, 부부장동무들이 앞장에 서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며 고스란히 모은 돈으로 조고무용부실에 전면거울과 바(가름대)셋트, 그의 비품들을 갖추었다. 저는 이 과정에 우리 문예동맹원동무들의 조직력과 함께 무용애호가들이 많다는것을 잘 알았다. 학생들은 많은 졸업생들의 사랑을 가슴깊이 느끼며 열심히 연습하여 50돐공연을 대성공시켰다. 저는 무용강사를 하는 과정에 학교창립 50돐을 맞이할수 있었던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민족교육의 정당성을 깊이 느낄수 있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사업, 특히 무용이란 깊이가 있고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



라는것을 느낄수 있었기때문이다. 또한 조국 선생님들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귀중한 시간으로 되었길때문이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앞으로 계속 살려 무용에 대한 자신의 요구성을 높여 기술기량과 함께 안무법과

후대양성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돌려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다.



대외사업에 참가하여

오사까문예동 무용부 박 말 자

2002년 9월 15일에 泉尾地域(大阪市大正区)에서 진행된 敬老會의 招待를 받아 우리 오사까문예동 무용부에서는 성인조에서는 독무에 성인조가, 중무에 청년조가 출연하였다. 일본사람이 主權하였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도 수 많이 참가해주셨다. 이날 우리 문예동이 출연한 연목은 대절찬을 받았다.

이곳 泉尾地域사람들은 조선무용을 보는것이 처음이었기에 연목마다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으며 《정말 곱다! 다시 꼭 보고 싶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우리들은 공연에 참가하면서 우리 조선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가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행사에 참가하여 더 많은 일본사람들과 동포들에게 우리 조선무용을 널리 선전해 나가겠다.

12월 제1기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수강생들이 돌아왔다!

8월6일부터 30일 문예일군 전습단 보고

| | |
|---------------|--|
| 참가인원 | 중앙 1명, 도까이지방 3명 니시도쿄 1명 조대 4명 |
| 강사 및 담당 | 김은하(예술교류협회) 기초, 소고춤 최은희(민족예술단지도원)발레트, 나의 초소 고은화(피바다가극단지도원)조개춤, 젊은 무희 최은주(평양음악무용대학) 기본동작, 장고춤, 조국의 품을 그리며 |
| 강습내용 | 오전:발레트훈련 기초훈련(제 2 단계, 조선무용기본동작) 오후:작품연습 |

도까이가무단 리미순

《노력만 하면 해결된다.》는 최은희선생님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예사로 듣는 말이지만 나의 심금을 울렸고 간단한 그 말에 깃든 깊은 뜻을 아는척하면서 이제야 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차렸다.